

오늘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3-24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3 | 특집기획 | 8 | 장애인사역부 여름수련회 | 11 | 십자말씀이 |
| 4-6 | 유유청 여름행사 | 9 | 겨자씨이야기(8-2) | 11 | 기독학부모 |
| 7 | EM 여름성경학교 | 10 | 봉사자간증(이미용부) | 12 | 교회사용설명서 |



무엇을 먼저 세우시겠습니까?

지난 2주간 유아숲과 유소년숲 아이들의 공과 내용은 유다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먼저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는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합니다. 성전과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회복을 위해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고힌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책 '교회의 소명'(IVP)에서 "선교적 원동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깊게 하기 위해 예배로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우리에게는 예배로 함께 모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함글함글

미래의 주님의교회 특집기획
'선교'를 다시 생각한다 ⑧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뜻대로 '선교'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글함글

발제 순서

1. 머릿글 _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류경민 목사 / 주님의교회 부목사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머릿글입니다. '주님의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정기욱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

한국 교회가 질적 선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을 통해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3.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김영동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주님의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오기까지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태동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한국일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선교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태동, 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및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5. 선교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박보경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한국 양스펠로십 대표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 성장'의 차원을 알아보고, 주님의교회의 성장의 영역을 생각해봅니다.

6.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이병욱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이웃을 만나왔지만 선포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대화적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됩니다.

7.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김도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교육도 역시 하나님의 교육(에듀케이션 데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하듯이,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 교육을 넘어서서 가정, 교회,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이 요청됩니다.

8.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한강희 교수 / 한신대 선교학과 겸임교수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기준과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을 살펴보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확장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1. 들어가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지속가능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의 존재와 선교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신앙인들은 온라인 예배에 놀랄만한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도 했다. 또한 공식 예배에 참여하거나 신앙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 온라인과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도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코로나 시대는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일부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사회적이고 극단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예전만 못하다. 팬데믹 시대 이러한 교회 내외부의 변화는 교회의 지속가능성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통계는 코로나 시대 교회의 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이 통계에서 대상자 57%가 코로나 종식 후에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고, 그 감소 폭은 약 27% 정도 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 코로나 이후 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교인이 전체 교인의 약 20%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음을 염두에 볼 때, 그 예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적 감소는 질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오랫동안 잠재해온 인구변동 역시 교회의 지속가능성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제는 신앙 공동체의 존립 자체에 대해 고민할 때이다.

본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현재 선교적 교회라는 대안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새로운 교회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해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실험이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신앙 공동체의 미래와 성숙을 위한 하나의 통찰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 소통의 공간이다!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해 왔을까? 기존에 교회의 지속가능성은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유지되어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비신자들에게 찾아가 전도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거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교회에 올 것을 권유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는 이러한 대면을 통한 전도를 불가능하게 했고,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탈근대시대와 후기 기독교 시대, 예전의 전도 방식으로는 교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분석이 발표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 환경을 살아가며, 개인은 자신이 믿는 신념을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신념의 상대주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낡은 전도 방식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선교 방식을 궁리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 방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적 소통을 핵심으로 삼는다. 전통적으로 선교나 전도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었다. 즉, “예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희망”이라는 진리를 전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행위자는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기독교의 복음전도 방식이 무례하고 배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와 달리 선교적 교회의 소통방식은 성육신적 존재와 선교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구원을 위해 인간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로 침투해 들어오신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방식을 추구한다. 이는 이웃을 복음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행해주는 것에서 복음전도가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 그랬다! 국내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은 바로 이러한 성육신적 소통을 통한 선교를 지향한다. 안타깝게도 복음전도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상을 통해 보여준 행위는 일방적인 독백에 불과했다. 이웃이 교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에 둔감한 채, “예수는 사랑”이라는 레토릭을 반복해왔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이웃의 아픔과 요구에 경청하고 이에 연민의 행위를 통해서 성스러운 연대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선교는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도적 교회에 얼마나 출석하느냐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는 오늘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앙 공동체는 마을 안에서 지배가 아닌 섬김을,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을, 혐오가 아닌 포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약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을 겸허히 섬기셨다.
이 글에서 간략히 소개할 선교적 교회의 실험적 모델은 이러한 성육신적 소통과 섬김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자주 망각해온 부분이다.

3. 성육신적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선교학자 크레이그 밴 겔더(Craig Van Gelder)와 드와이트 샤일리(Dwight J. Zscheile)는 선교적 교회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무브먼트”(movements)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1) 선교적 교회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며, 2) 하나님의 통치를 정체성으로 하고, 3) 대안 공동체를 추구하며, 4)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5) 선교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육성하며, 6) 실행 일치라는 생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무브먼트는 향후 교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회 선교 정책과 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교회의 역할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은 “마을 목회”라는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교회는 마을 안에 속해있으면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인은 마을에 파송된 마을 선교사이다. 하나님 나라를 마을이라는 공간 속에서 구현해 가는 사도이다. 또한 교회의 존재는 마을을 통해서 존속된다. 결국 마을의 지속가능성 없이 교회의 지속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교회와 마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교회의 지속가능성은 마을을 어떻게 섬기고 마을의 자원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을 현장화한 “마을 목회”를 교단의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이후, 주류 교단에서도 마을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고 세상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해외선교지 등 지역별로 마을 목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과 프로그램이 논의되었다. 또한 사역별로도 구체적인 아젠다가 설정되었는데, 빈민, 생태환경, 다문화, 이주민, 민중, 아동, 문화 선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지면의 한계상 본 글에서는 마을 목회를 추구하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이다. 해인교회(이준모 목사)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지역 마을에 급증한 실직자와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한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를 창립하였다. 이 모임은 2000년에 이르러, 「인천 내일을 여는 집」(홈페이지: www.homelessshot.or.kr/)으로 발전했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마을 복지와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선교 제도를 실행해 왔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신앙인들이 지역 마을을 변화시켜 지역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선교적 교회에 기초해 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입각한 경제적 대안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인교회는 마을 섬김을 위해서 교인은 물론 사회복지 전문가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역 복지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단순히 복지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의 니즈에 부합하고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포용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해인교회 담당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계양구 지역 마을의 긴급 사안으로 실직자와 노숙인을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4단계의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것은 “① 긴급구조활동 → ② 상담과 사례관리 → ③ 교육 → ④ 재취업과 지역발전사업”으로 왼쪽 하단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을에 속한 실업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위기 가정을 위해서 심층 상담을 실행해 문제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구직 의사가 있다면 지역 공동체 구직 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소외 계층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며, 마을의 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담아내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 도표가 주요 활동 영역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인교회	가족상담소 032-541-1366
남/녀 노숙인쉼터 032-544-6330	해인지역아동센터 032-543-8004
무료급식소 032-556-8004	인천계양시니어클럽 032-555-6330
푸드뱅크/푸드마켓 032-555-1377 / 551-1377	사회적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 032-555-8899
인천쪽방상담소 032-543-6330	사회적기업 도농살림 032-555-7332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보금자리와 식사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숙인 쉼터’,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푸드뱅크/푸드마켓’, 쪽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는 ‘인천쪽방상담소’, 가정폭력과 부부 및 자녀 갈등 관계에 있는 이들을 위한 ‘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인지역아동센터’, ‘인천계양시니어클럽’, ‘계양구재활용센터’, ‘도농살림’을 통해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을 신앙 공동체가 관여하여 돕고 있다. 해인교회가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좋은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생명 목회를 기반으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는 것에 있다. 해인교회는 마을 주민들과 이러한 성육신적 소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실천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교회가 공감하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해오신 그 사역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4. 교회, 그리스도 성품의 공동체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발현하는 “성품의 공동체”이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어떤 선교적 실천과 행위만으로 국한하지 않는다. 마을 목회와 마을 선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행동주의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귀한 삶의 자취와 삶의 모습을 2022년 오늘의 시공간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재현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물음을 던진다. “교회됨(being the church)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신앙인과 교회는 성육신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탐욕과 죄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신앙에 기초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도적 교회에 얼마나 출석하느냐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는 오늘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앙 공동체는 마을 안에서 지배가 아닌 섬김을,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을, 혐오가 아닌 포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한강희 교수 / 한신대학교 선교학과 겸임교수



유아숲
예친소와 여름성경학교

“숨숨~~ 복음여행!!”

‘밝은 햇빛 뽀뽀뽀 빛나는 오늘 우리 함께 달려가 보자!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사랑 가득한 성경학교로!’

지난 7월 9일 오프닝예배를 시작으로 두 주간의 유아숲 여름성경학교가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오프닝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아숲에 속한 7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까지 모두 143명의 어린이들이 등록하였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숨숨~ 복음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여름성경학교는 예친소 친구(전도한 친구)를 초청하여 뮤지컬 ‘춤 추는 나무’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준비한 찬양웨이브, 찬양파티를 통해 여름성경학교의 열기가 더욱 가득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현장에서 열린 것 뿐 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안내영상을 제공하여 매 주마다 다양한 만들기 활동(슈링클스 열쇠고리, 물실편, 아이스크림, 양 망원경)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숨숨~ 즐겁고 행복한 복음여행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유아숲의 여름성경학교를 현장에서 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주님의교회 유아숲!

이은미 전도사 / 유아숲



청소년숲
올(all)라인 수련회 시즌5
옴니버스 챌린지

함글함글 회복하는 10대 그리스도인

청소년숲 2022년 여름수련회는 옴니버스 챌린지-시즌5로 준비되어 7월 24일(주일)-7월 31일(주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교회 전체의 방향에 맞추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주제를 정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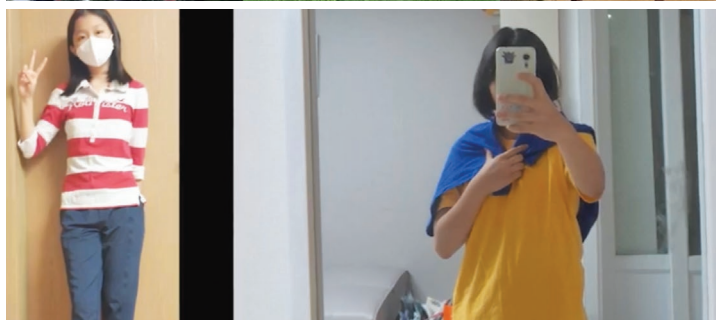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 마음 모아 함께 예배하고, 평일(월-금)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챌린지(미션)를 참여했으며, 토요일에는 zoom에 모여 실시간으로 청소년숲 가족들과 소통할 뿐 아니라 크리스천 래퍼 다비드 등의 게스트를 초청하여 ‘회복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청소년숲 가족들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동역자로서 ‘러브 투게더’, ‘해피 투게더’, ‘피스 투게더’하며 함글함글 회복하는 귀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한 302명의 중·고등부 학생, 교사, 부모님들 모두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며,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준비 기간부터 진행되는 8일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혜원 목사 / 청소년숲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예배/미션!	청소년날Day	러브 투게더	해피 투게더	피스 투게더	회복날 Day	BBQ Day	예배/미션!
AM 9:00 오프닝 예배	AM 11:00 사전 zoom 미팅	AM 9:00 함글함글 로켓단TV (유튜브 시청)			BBQ 뉴스 (특별 인터뷰)	BBQ 축제의 날 Bow & Break & Question Time	AM 9:00 클로징 예배
스마트 미션 (오코박스 인증샷)	PM 10:00 ~ 참가자 전까지 투게더 타임			데이데이 일일미션 (연세대학교 도전할 수 있는 주종 프로그램)			시상식
데이데이 일일미션 (연세대학교 도전할 수 있는 주종 프로그램) 1. 우리 동네 꽃, 연꽃에서 보기 2. 물고기 열매채 3. 고고 챌린지							



3. 가장 인물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 어떤 생각 들었나요?
 *예시: 세상에서 나만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등 리체가 하주 아침에 변했다고 관 정도 난민이라는 수식어가 나에게 붙을지도 몰랐다는 말처럼 나에게도 감격이 생겼고 이는 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평일 미션 수행

수련회 소개 영상



위의 QR코드를 통해 청소년숲 수련회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다

수련회 후기 영상



위의 QR코드를 통해 청소년숲 수련회 후기 영상을 볼 수 있다



영어예배부(EM)
여름성경학교(VBS)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2022년 영어예배부(EM) 여름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가 8월 6일, 7일, 10일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영어예배부 여름성경학교는 Monumental : Celebrating God's greatness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속 인물인 요셉의 삶에 대해 집중 공부하며,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예배와 찬양 시간 및 4개의 수업 Bible Adventure(성경공부), Imagination Station(과학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만들기 수업), Red Rock Rec Games(게임), Oasis Tastes Snacks(스낵 만들기 수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배, 찬양, 각 수업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사랑하시고'(God loves you no matter what, 첫째날 주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God is with you everywhere, 둘째날 주제)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54명, 교사 25명이 참여한 2022 영어예배부(EM) 여름성경학교는 3년 만에 교회에서 한 EM VBS여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 프로그램이 끝나도 쉽게 자리를 뜰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영어예배부(EM)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정지인 목사 / 영어예배부



장애인사역부
여름영성수련회

더욱 사랑

주님의교회 장애인사역부는 지난 7월 17일(식당나무)과 24일(에바다) 주일에 여름영성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사역부 안에 있는 식당나무와 에바다 두 부서가 함께 진행했던 수련회를, 올해에는 각 부서의 특성과 관심에 맞게 구분하는 것을 지향하여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주제 말씀 ‘더욱 사랑’(갈 2:20-21)과 주제 찬양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앞세워 사랑의 식탁(식사 및 티타임), 사랑의 교제(강의 및 레크리에이션), 더욱 사랑(기도회)의 일정을 진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영성 수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장애인사역부의 2022년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더욱 사랑함으로 강건히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름영성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겨자씨이야기

8교구 주님과같이 겨자씨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똑똑똑~ 조심스럽게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모임방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렸던 어느 해 봄날이 문득 떠오릅니다. 교회에 등록은 했고 내 삶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부로 가기엔 연식(?)이 오래되어 빠져거릴 것 같고, 젊은 부부 소그룹으로 가기엔 대화 주제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주저되는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하고 일단 두드려 본 겨자씨 모임방. 걱정과 다르게 웬걸~ 하회탈같은 눈으로 웃으며 맞아주시는 두 분의 자매님들과 이지형 목사님의 따스한 눈빛,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로부터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러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늘어나 양적인 부흥은 물론, 이제는 겨자씨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겨자씨원들의 삶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질적인 부흥까지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30~40대 싱글로 이루어진 저희 겨자씨는,

매년 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한 가지를 정해 그 해 목표로 삼아 각자의 다짐을 적어 타임캡슐에 넣고, 1년 후에 그 열매를 따라 잘 살았는지 되짚어 보며 타임캡슐 열어 보기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다 이루어내려면 아직 5년 더 남았네요.^^

매주 3,4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며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때로는 신앙 서적을 읽고 자율적으로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하거나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기 십상입니다. ㅋㅋ

매일 아침 『주님과함께』 본문으로 SNS에서 그날 말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과 진배없는 깊은 묵상을 공유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진을 보면 짐작하셨겠지만 각종 액티비티를 겸한 아웃팅 활동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으니 주 안에서 같이 놀고 웃고 즐기자고요!

아직도 주저하고 계신가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웰컴웰컴~^^

똑똑똑.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정은 집사 / 8교구



봉사자 간증
이미용부

더욱 사랑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이미용부입니다. 아마도 주님의교회에 이미용부라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 주님의교회에 2008년도 이미용부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7명의 미용 연습생이 함께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중간중간에 뜻이 있어서 미용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았으나 끝까지 남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보기에는 쉽지만 실제로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이 미용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40명의 부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소망으로 꿈꾸게 하시고 힘써 주의 나라와 주와 복음만을 위해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미용부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 다니는 11곳과 25명의 봉사자들 그리고 비전트립과 미자립교회와 주일 연습반과 화요 연습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앞서 마땅히 머무를 곳 예비해 주시고 갈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날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겠지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말없이 사랑의 수고로 이웃을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뜨거운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미용부에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서로에게 귀한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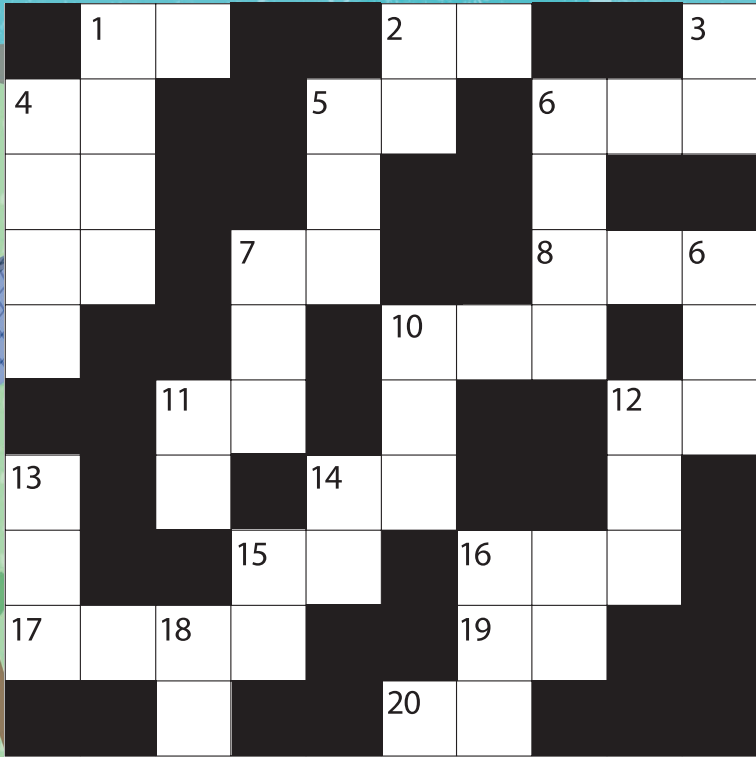
한결같이 바보(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사람)처럼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우리 이미용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임미희 권사 / 이미용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창세기편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십자말풀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호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을 모았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세로 힌트

1. 셀라가 낳은 레멕의 아들,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2. 잇사갈의 둘째 아들. 할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70인 중의 한 사람.
3. 큰 수양 호리 족속 디손의 아들.
4. 비손, 기훈, 히타겔과 함께,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 가운데 하나.
5. 비손 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산출되었다.
6. 야곱이 처가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압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축복으로 받은 이름.
7. 레위의 큰아들.
9. 에돔 왕 하달의 아내 '므헤다벨'의 어머니이며 메사합의 손녀.
10. 아셀의 아들로, '재앙을 받음'이라는 뜻이다.
11. 레아가 낳은 야곱의 외동딸로, 하물의 아들 세겔에게 능욕을 당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했다.
12. 스보임의 왕.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알의 왕들과 동맹하여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4개국을 상대하여 싸우다가 패전하였다.
13. 나홀인의 조상이 된 족장. 이름은 '하나님의 무리'이라는 뜻으로, 나홀인에서 아람이 나왔다.
14. 갓의 아들.
15.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로, 이름은 '검다'는 뜻이다.
16. 아브라함의 옛 이름.
18. 애굽왕을 성경에서 두루 부르는 이름.

가로 힌트

1.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여섯 번째 아들.
2.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처 밀가의 두 번째 아들.
4. 가인의 자손 레멕의 아들로, 수금과 통소와 같은 악기를 처음 만들었다.
5. 아담의 아내.
6. 호리 사람 디손의 아들로, '뛰어난 자'라는 뜻이다.
7. 베냐민 지파의 흔한 이름으로 베냐민의 아들이며 '곡식'이라는 뜻이다.
8. 구스의 아들이며 스바와 드단의 아버지.
10.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밀가의 아들이며 리브가의 아버지.
11.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으로 호리 족속의 족장 가운데 하나.
12. 야곱의 손자이며 스볼론의 아들.
14.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
15. 야곱과 빌하가 낳은 납달리의 아들.
16. 야곱과 라헬이 낳은 베냐민의 아들.
17. 엘론의 딸 아다가 낳은 예서의 아들.
19. 에돔왕 하닷의 아버지.
20. 셈의 아들. '고원'이라는 뜻이다.

기독학부모
시작하는 이야기

나는 기독학부모, 교육의 희망입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의 기독학부모 활동가 모임(함성지기)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을 주제별로 유목화한 결과 기독교대안학교, 미션스쿨, 공교육의 구분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적 자녀양육과 신앙훈련, 신앙과 학업의 균형, 부부의 교육관 차이, 자녀이해, 사춘기 이후의 신앙생활, 성경적 진로 탐색과 은사 찾기, 기독학부모 모임 등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학부모 활동가 모임(함성지기)에서는 질문과 고민 하나 하나에 대한 심도깊은 나눔으로 제시되는 가장 기독교적인 대안들을 정리하여 <함즐함울>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자녀와 학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학교 안에 있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기독학부모가 아니더라도 교육에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 연재될 기독교교육과 기독학부모 이야기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사용설명서③

교회 신문, <함글함글>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목적으로 펴내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함글함글>의 전신은 교회창립 4주년이 되던 1992년 4월 창간된 <나눔의 소식>이라는 제호의 소식지였습니다. 이 소식지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부목사로 재임하고 있던 현 김화수 담임목사의 주도로 1996년 8월 선교지 <함글함글>이 창간되었습니다. '함글함글'이라는 이름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후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 공동체 소통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크기는 A4에서 B4로, 면수는 4면에서 6면, 8면을 거쳐 많을 때는 24면까지, 발간 주기는 1~3주 간격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2003년부터는 재생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4도 인쇄를 도입했습니다. 2011년에는 <함글함글 편찬지침>을 제정하여 편찬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함글함글>에 수록되는 내용은 성도들이 알고자 하는 것,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알아야 하는 것,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예배와 설교, 전도와 선교, 교회 사역과 행사,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 신앙 간증과 기독교 교양 등이 포함됩니다. 소식의 전달뿐 아니라, 교회 역사의 기록으로 빠뜨리면 안 될 일들도 챙겨서 게재합니다. 편집 과정에서는 <함글함글>의 목적과 사명,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글인가,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했는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특정한 개인이 강조되거나 중심이 되는 글이나 사진은 되도록 수록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필이나 간증과 같은 개인적인 글이 아닌 모든 보도기사, 논설, 칼럼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에 대한 존칭은 넣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오프라인 모드

<함글함글>의 종이 신문은 통상 3주 간격으로 발행됩니다. 발행 부수는 출석 교인의 수에 따라 1,000~2,000부 사이에서 결정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석 교인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1,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 비치해 놓고 있어 누구나 편하게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드

<함글함글>의 온라인판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52호(2009년 7월 12일자)부터 최근호까지 PDF파일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데이터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창간호부터의 모든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www.pcltv.org/Board/Index/1091?page=1

*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공동체** 클릭 - **소통과 기록** 클릭 후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시면 <함글함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함글함글>을 펴내기 위해서 담당 교역자와 장로, 편집장과 취재기자, 사진기자 여러분이 토요일 아침 편집회의에서 다음 호의 취재 방향을 정하고 담당 기사를 나눕니다. 한편 필자를 섭외하고, 투고된 글을 검토하며, 지면을 배정합니다. 마지막 주가 되면 편집장은 이 모든 일의 실무 책임자로 1면 사진을 고르고 기사를 쓰며, 제목을 달고 지면을 편집하여 디자인 간사에게 전달합니다. 디자인 간사는 디자인 기준에 따라 서체를 배정하고 사진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넣어 간결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합니다. 목요일이 되면 디자인된 초고를 함글함글 편집진이 함께 나누어 교정을 보면서 오탈자를 잡아냅니다. 마감 시간에 쫓기며 마지막 교정을 보는 일은 때로 진땀 날 정도로 긴장됩니다. 다만 주님의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애독과 격려를 기대할 따름입니다.

교회일정

9/2(금) - 3(토) 하반기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알립니다

1. 2022년도 온라인 비전트립 일정

필리핀 : 8/19(금)~20(토)

문의 : 박성갑 집사(010.5274.8590)

2. 예배부원 모집

내용 : 2, 3, 4부 예배위원

문의 : 홍기호 안수집사(010.5282.7000)

3. 4부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집

문의 : 이성규 안수집사(010.5503.5512)

4. 주방부원 모집

1부 : 06:00~09:00

2부 : 09:00~11:00

3부 : 11:00~13:30

문의 : 박경희 권사(010.2268.8805)

5. 주차안내부원 모집

문의 : 배기호 안수집사(010.7124.2936)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